

지역 매 아리

김종규 부안군수 예비후보

"어한기 어구보수비용 및 생계비 지원"

무소속 김종규 부안군수 후보가 격포 개방형집단지 및 주변 상가를 방문하고 맞춤형 공약을 제시했다.



21일 김종규 후보는 격포항 주변 어민들의 대담에서 '어민들이 어한기에 어구를 손질할 때 드는 비용과 어한기 생계비용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종규 후보는 '격포항이 대한민국 3대 미항으로 선정되어 격포항 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더 많은 관광객이 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로 개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김종규 후보는 '2023년 세계잼버리 대회가 새만금 부안지역에서 치러지는 만큼 앞으로 변산과 격포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것이다' 우리는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며 요식업 및 숙박업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관광부안을 만드는데 동참해 주기를 호소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예비후보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지원"

바다목장 및 바다숲 조성"

더불어민주당 권익현 부안군수 예비후보는 21일 '소형어선 전문 조선소 유치'로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비부담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권익현 예비후보는 "관내 등록어선 척수는 1,100여 척에 달하나 관내 조선소가 전무해 대체조선사나 수리시 군산이나 전남지역 조선소를 이용한다"며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종 인허가 협조 및 신축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을 통해 관내에 '소형어선전문 조선소'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권익현 후보는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수자원 고갈의 원인이 되고 있는 해양쓰레기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며, 2018년 3억 원인 해양쓰레기 수매사업비를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시가지 일원 지중화사업 추진

정읍시, 15억5천만원 투입 · 12월 완공

시청 앞 기아자동차~중앙로, 정읍세무서~새암로 구간

정읍시가 올해 15억5,000만원을 투입해 중심 시가지 일원 지중화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중심 시가지 도로 내 한전 배전선로 등을 지중화 하는 도시경관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미적으로도 아름다운 가로 경관을 조성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공사 구간은 시청 앞 기아자동차~중앙로(400m) 구간과 정읍세무서~새암로(120m) 구간이다. 시는 이들 구간의 한전과 공가통신, KT의 전선과

케이블선 등을 매설하고 기존 선로와 지장 전주를 철거할 예정이다.

시는 이들 중으로 모든 설계를 마치고 6월 중 공사에 착수, 오는 12월까지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관련해서는 지난 3월 주민 합동 설명회를 갖고 지역주민들과 주변상가 의견을 수렴한데 이어 4월에는 관련 기관 간 업무협약도 가졌다.

지중화사업은 정읍시의 사업 시행자가 각각 50:50으로 사업비를 부담하는데, 한국전력공사와 KT, 공가통신

사업자(LG유플러스, SK텔레콤, CJ헬로비전, 세종텔레콤)가 시행한다. 또 정읍시가 포장 복구를 맡는다.

시 관계자는 "지중화사업을 통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히는,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전선과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전주를 없애고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시가지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 추진기간 통행 불편이 있을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주변 상가와 시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2018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신청

고창군, 6월 14일까지 군청 민생경제과 방문 · 접수

고창군이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2018년 고창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기간은 21일부터 6월 14일까지이며, 고창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용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 관련서류 등을 첨부해 군청 민생경제과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지원자격은 고창군에 주소를 둔 공장을 등록한 제조업체로, 휴·폐업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이번기 용자대상 선정 규모는 용자액 50억원이며 약 10여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으로 업체당 최고 5억원까지 운전자금으로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창군은 선정된 업체가 관내 협약은행(NH농협은행, 전북은행)과 대출상환한 금리의 4% 이자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며 업체당 최고 5억원까지 운전자금으로도 용자받을 수 있으며 상환은 3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지원대상은 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대상 업체에 개별 통보한다.

민생경제과 신학준 과장은 "사업성과 기술력이 우수한 관내 중소기업이 고창군 지역경제를 이끌 건설한 중소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다른 지원사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웰파크시티-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지역발전 업무협약 체결

군,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 관광 활성화 기여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정영덕)는 최근 지역 발전 및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산림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서울시니어스 고창웰파크시티(고창 석정소와 본부장 정병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산림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서울시니어스 고창웰파크시티(고창 석정소와 본부장 정병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산림체험콘텐츠 운영에 필요한 지식 및 정보 공유 ▲방장산자연휴양림 숙박객 입장객 입장료 할인 ▲주중이용객 활성화 등 지역발전 도모 ▲상호 홍보 및 관심분야에 대한 공동 협력 등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서부지역 팀장(직무대리 박영길)은 "방장산자연휴양림과 고창웰파크시티가 보유한 전문지식, 경험을 상호 융합하여 고품격 산림휴양서비스 제공 및 건전한 휴양문화 정착에 앞장 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농업기술센터, 오는 24일 꼬끼리마늘 재배시험 평가회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오는 24일 꼬끼리마늘 재배시험 평가회를 갖는다. 기술센터는 농가의 새로운 소득 작목 육성 일환으로 일반 마늘보다 크기가 2~3배 가량 큰 토종마늘인 '꼬끼리마늘'을 시험 재배하고 당일 오후

2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를 평가하는 자리를 갖는다고 22일 밝혔다. 기술센터는 꼬끼리마늘 재배기술 확립을 위해 지난해 9월 하순 농업기술센터 내 시험포장에 심는 거리를 달리하여 꼬끼리마늘을 파종했다. 기술

센터는 "일반마늘(남도마늘, 대서마늘)과 비교 시험 중에 있다"며 "수확기를 앞두고 농가들을 대상으로 평가회를 열어 신 소득작물로서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도진 정읍시장 예비후보, 장애인 전문이동차량 지원 확대

정도진 민주당 후보는 최근 "선거를 20여 일 앞두고, 갈수록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는 정읍시장 선거가 안타깝다"면서



"그렇수록 정읍 시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나아가 '네거티브 선거'를 하지 않고 오로지 정책과 성실한 선거운동으로 승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정 예비후보는 서부복지관을 방문

해 선거운동을 하면서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시내버스 요금 감면도 약속했다

정 예비후보는 "정읍의 1만명 등록 장애인을 위해 전문이동차량을 늘려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독거노인 공동숙식(그룹홈) 지원을 늘리겠다고, "체육·취미 활동이 가능하도록 '노인바우처'도 확대해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만8천여 명으로 이미 정읍 인구의 25%가 넘는 초고령사회인 점을 감안해 3대가 함께 살며 부모를 봉양하는 세대에는 '특별효도비'를 신설해 지원하겠다"고 정 예비후보는 약속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철수 정읍 도의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양기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과 의원 출마자들의 개소식이 연달아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



민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하지 않은 후보가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인공은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서 공천장을 수여받은 정읍시 제1선거구 도의원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철수 후보이다.

김 후보는 "출마자들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주에도 몇 건씩 개소식이 진행되는데, 개소식마다 찾아다니시는 시민들의 고통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부담도 덜어드리기 위해 개소식을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이전까지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직접 찾아뵙고 인사 올리는 시민 중심의 선거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살아가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정읍으로 변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Advertisement for 'Jin'an Gogwon' (진안고원) honey wine. It features a large bowl of honey wine, a bottle of honey wine, and the text '대한민국 홍삼 특구 진안고원' (Republic of Korea Ginseng Special District Jin'an Gogwon) and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World Liquor Tasting Competition Gold Medal). The brand name '홍삼주' (Ginseng Wine) is written in large, stylized characters.